

이지상의 ‘여행과 삶’



한국 해외여행의 역사

본격적인 한국 해외여행의 역사는 해외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진 198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1960년대에 이미 세계 일주를 세 차례나 한 여행가 김찬삼이 있었다. 지리학자인 김찬삼(1926~2003)은 1958년부터 1961년까지 제1차 세계일주 여행을 한 이래 30여 년에 걸쳐 3회의 세계 일주와 20여 회의 테마여행을 통해 160여 개국, 1000여 개의 도시를 방문했다. 이를 거리로 환산하면 지구를 32바퀴 돈 것과 같고, 시간으로 치면 여행에만 꼬박 14년이 걸렸다고 한다. 또한 1992년에는 67살의 나이에 실크로드와 유럽을 잇는 7만 3000km의 여행 길에 올랐었다. 그는 전쟁 후 가난에 지친, 혹은 고도성장 속에서 꿈을 키워나가던 60년대, 70년대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지금 여행을 하고, 여행기를 쓴 사람들 중에 그 시절을 10대, 20대로 보냈던 50대, 60대들은 대부분 여행가 김찬삼의 영향을 받았다. 그의 여행기를 읽으며 꿈을 꾸던 이들이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부터 꿈을 실현시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행자들은 책, 강연회, 방송을 통해 여행 경험과 정보를 널리 알렸고 그 영향을 받은 젊은 학생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여행 경험을 확산시켰고, 90년대 후반쯤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해외여행은 점점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여행 지역도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 일변도에서 인도, 중동, 중남미, 호주, 아프리카, 러시아, 몽골 등으로 확산되었고 점점 전문화, 분업화 되어갔다. 여행하는 방법도 오지 여행, 테마 여행, 횡단 여행, 세계 일주 여행 등으로 분화되면서 한 곳에서 오래 체류하는 여행자들도 등장했다.

이런 현상을 거시적인 틀로 보면 흐름이 보인다. 해외여행 초창기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여행의 코드는 도전, 개척, 진군이었다. 이런 여행은 근대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 효율성, 생산성을 추구하는 근대 사회의 의식은 한국에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가장 팽배했었는데

그때 학생이었던 20대, 30대들은 해외에 나가서 그런 방식으로 여행했다. 그들은 유명 관광지, 세계일주 등 거대한 프로젝트를 좋아하고, ‘더 많이, 더 빨리’를 강조했다. 외화를 아끼기 위해 고생하고, 물살고 낯선 해외에서 도전하고 극복하는 정신 자체를 중요시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 했으며, 돌아와 더 나은 삶을 이룩해내자고 외쳤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천천히 여행하고 한 군데 체류하는 여행자들이 생긴다. ‘살기도 힘든데 나와서까지 힘들게 여행하나?’는 마음을 가진 여행자들은 많이 다니기보다는 좋아하는 지역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여행했고 휴식을 취했다. 그중에서는 물가 싼 지역에 체류하며 마약과 쾌락에 몸을 던지는 이들도 생겨났다. 서양이나 일본에서 이미 보았듯이, 근대 산업 사회의 규격화된 삶, 속도에 지친 사람들 중에서 현실을 도피하는 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모습은 탈근대 사회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도전, 진군, 개척적

다는 지금 눈에 펼쳐지는 현재를 즐겼다. 즉 ‘카르페 디엠’(현재에 몰입하라)에 심취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사유, 성찰의 경향을 띠는 여행이 등장한다. 노는 것도 한 때지 늘 떠돌면서 살 수도 없고 경제난으로 인해 다시 세상의 조직 속으로 돌아오기도 힘들다. 이들 중에는 지방에 내려가 카페, 게스트 하우스를 하는 이들도 생겼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가치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사유, 성찰이었다.

여행에서 나타난 이런 세 가지 성향은 현재 공존하고 있는데 디지털 문명으로 인해 다시 변화와 맞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휴대폰을 이용하며 편리하게 여행하는가운데, 점점 자유로운 여행은 규격화 되고 비슷한 곳에 가서 인증 샷을 찍고, 맛집을 sns에 올리는 것이 여행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간다. 도전, 자유, 이탈하는 행위로서의 여행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어떤 성향으로 진화될지 궁금하다.

〈여행작가〉

커피한잔



조 경 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즈로 보나 역동성으로 보나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대단했다. 한국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누구나 공감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성취, 그걸 해낸 사람들이 이들이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대규모 인구군(人口群). 무려 715만명이다. 지금으론 상상하기 힘든 7남매 8남매를 형제로 두고 있는 세대, 한미약수표 밑가루포대가 기억에 남아있는 세대, 아침 반 낮반 70명 콩나물고깃국 국민학교 시절을 겪은 세대, 목종을 들고 교련수업을 받았던 세대, 장남의 대학진학을 위해 나머지 삼고 공고를 택해야 했던 세대, 식구 중 한 두명은 공돌이 공순이가 있었던 세대가 이들이다.

70년대가 산업화의 기류이 잡힌 시대

1987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었다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산업화의 주력부대였다. 공대를 졸업하면 국가 기간산업체에 신속히 흡수되었고 인문계학과를 졸업하면 공공직 기방을 들고 해외 시장을 누볐다. 무수히 신설된 공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공단 기술자로 대량 투입되었고 중학교를 졸업한 옛날 소년들은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저임금 조립라인을 가득 채웠다.

80년대가 되자마자 남한사회는 민주주의를 위한 대 갈등의 시기를 맞이한다. 고속경제성장의 그늘에 희생된 인권을 되찾는 전쟁이었다. 주역은 역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었다. 군사정권의 폭압은 무자비했다. 사과탄, SY-44총류탄, 지랄탄, 페퍼포그가 일상이었고 전국의 대학과 공단에서 체포, 투옥, 강제군입대가 흔하게 목격 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쳤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막내 뺄 들어 스물 네댓살이 될 무렵, 수많은 양심 있는 이들의 죽음을 먹고 남한사회는 마침내 민주화를 성취한다. 1987년 6·29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세상을 만든 것이다. 여기까지였다.

1987년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자신들이 청춘을 바쳐 이룩한 산업화와 민

주화를 더욱 꽃피우게 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너무 기진맥진한 것일까.

그 큰 사이즈, 그 놀라운 역동성을 가진 이 집단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일들을 뒷 세대에 넘겨준 채 신속히 천민자본주의의 대열에 합류했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운동권 투사들도, 사법정의를 외치던 소장 판사 검사들도, 의료정의를 부르짖던 젊은의사들도, 대기업 엘리트사원들도, 육사출신 청년장교들도 더 이상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지 않았다.

고민하지 않은 정도에 머무른 게 아니었다. 2000년대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사회 중추세력인 40대 중반에 이르자 게걸스런 탐욕과 기발한 부정부패, 사치향락, 성적 문란, 감쪽 놀랄만한 자기직무의 나태에 빠졌다. 지난 20년간 벌어진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사건은 죄다 베이비부머세대들이 그 주인공이다.

베이비부머들이 했어야 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 놓는 일이었다. 간접세의 축소, 재벌의 업역(業域)제한, 토지공개념과 공공주택의 보급, 공적부조(公的扶助)의 확대, 공공교육의 정상화 등 할 일은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고도성장의 열매를 사유화하는 일에만 몰두’(사회학자 송호근

의 분석)했다. 무의식에 깊이 각인된 유년기의 공핍이 원인일 수 있다. 21세기의 기성세대가 된 이들은 복지를 위한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놓지도, 이젠 매워질 기망이 없어 보이는 엄청난 양극화를 어찌해 보지도 못한 채 뺄살만 늘어갔다. 오로지 돈, 아파트 평수, 고급차, 아들 딸 명문대 보내기가 이들의 사상이요 철학이요 인생관이었다.

그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무더기로 퇴장하고 있다. 특권층이 되어버린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베이비부머들은 부모봉양과 자식교육을 위해 평생을 허덕이다 반 강제로 아무런 대책없이 사회에 내뱉어진다. 연금을 타기엔 6~7년이나 더 기다려야 하고 그나마 생활비로 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녀들은 아직 학생이거나 미혼이다. 뭔가 사업을 벌여 보려지만 자본금은 최후의 비상금인 퇴직금 뿐이다. 공포, 고독, 그리고 상실감이 덮쳐온다.

산업화를 이뤄내고 민주화를 성공시킨 베이비부머 세대들, 그 엄청난 연대감과 효율성으로 마음먹은 것은 기필코 이룩하고야 마는 의지의 한국인들이 1987년 이후 공동선(共同善)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대가다. 어찌할 것인가.

기 고



정 숙 경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장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극심한 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어느 지역에선 물이 부족해 가축과 경작물이 고사하는가 하면, 다른 곳에선 홍수로 수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274mm이나 이 중 3분의 2가 여름에 집중되고 있고, 전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인 까닭에 하천 경사가 심해 홍수기에 많은 물이 일시에 바다로 유출되고 있어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불리한 자연조건을 갖고 있다.

UN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2030년경이면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가량이 물 부족 지역에 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천 취수율이 36%로 물에 대한 스트레

물 순환 선도도시 시작은 빗물이용부터

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한 우리나라도 향후 물 부족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대체 수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수자원 개발은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연결, 지하수 이용과 대체 수자원으로 충수도 활용이 권장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빗물을 이용한 물 순환이다. 빗물이야말로 모든 수자원의 근원인데다 담이나 지하수, 중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비 투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016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물 순환 선도도시’에 선정되어 빗물을 이용한 생태도시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있다. ‘물 순환 선도도시(촉촉한 도시)’란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드는 투수(透水) 불록을 설치하거나 식물로 만들어진 식생수로 빗물정원 등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을 도시 곳곳에 적용해 기존 도시보다 빗물 저장능력이 뛰어난 도시를 말한다. 이는 빗물에 섞인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시 침수, 가뭄 등에 대한 대응능력

을 높여 도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시 빗물 분산관리를 위해 도입한 빗물을 침투·저류시키는 기법은 수질개선, 빗물 유출저감, 열섬완화 등 다양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는 2002년에 빗물 분산관리 조례를 제정한 이후 부유물질, 질소·인 등 수질오염이 6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 크론티스베르크 주거단지는 빗물(우수)관 없이 식생 수로 주거단지 개발 이전의 물 순환량을 회복하고 있다. 베를린 시는 불투수면을 줄여 여름철 기온을 최대 3℃가량 낮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북 오창에 빗물유출제로와 단지가 조성됐는데 조사결과 빗물 유출량의 17.5%가 감소해 비점오염 저감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광주지역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수질 특성 연구를 계절변화에 따른 시기별 수질 특성, 저류 시간 경과에 따른 빗물의 수질 변화를 조사했다. 그 결과 빗물은 강우 초기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저장 이후에도 건강상 유해물질 등이 전혀 검출되

지 않았다. 광주의 빗물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황사가 있는 봄철이 여름철에 비해 탁도, 색도 등이 약간 높았으나 10일간 저류시킨 후에는 pH는 약알칼리성으로 변하고 색도와 탁도도 먹는물 수질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우리시의 빗물이 충분히 수자원이어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수도물을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해 물의 유한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공감대가 낮은 실정이다. 2012년 OECD는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가 40%에 달하는 물 부족 국가이며, 2030년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물 부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광주시가 물 순환 선도도시에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 부족, 수질오염, 열섬효과, 도시형 홍수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관 개선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 순환 선도도시 시작은 빗물 이용부터라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퍼져 빗물관리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기대해본다.

社 說

광주 軍공항 이전, 대구처럼 정부가 주도해야

광주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군(軍)공항 이전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어제 시작된 국방부 민간 평가위원들의 광주 군 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가 오늘까지 이어진다.

이번 평가는 군 공항 이전 여부를 판가름하는 최초 관문이다.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 온 주변 주민은 물론 광주의 제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전이 이번 평가 결과에 좌우되기 때문에 관심 심 또한 매우 높다. 평가 작업은 지난 2013년 4월 관련 법률 제정 이후 3년 4개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법시민주진위(2013년 10월)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뒤 2년 10개월 만이다.

특히 최근 광주와 마천가지로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해왔던 대구공항 통합 이전작업이 속도는 내는 시점과 맞물려 더 주목받는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범정부적인 지원을 지시한바 있는 대구공항 이전은 후보지 물색에 나서는 등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어서 광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촉각이 모아진다.

하지만 이번에 적정 평가가 나오더라도 군 공항 이전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당장 5조~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과 대표적인 ‘남미시설’로 기피하고 있는 후보지 선정이 숙제로 떠오른다.

이런 현실 탓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은 불가결하다 할 것이다. 기존 광주 군 공항 부지 개발 비용으로 이전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워사이다. 이전 후보지 결정에는 적절한 보상대책이 필요한 데 이 또한 정부만이 해결 가능하다.

도심 군 공항 때문에 주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어디인들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광주와 대구의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똑같은 잣대로 처리하는 형평성을 기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세월호 교훈 잇은 교육현장의 안전불감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계기로 교육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S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A(4)군이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것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해 재난안전팀을 신설했으나, 전담 인력 4명에게 통학버스 및 재난 사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토록 했다. 교육청이 통학버스 운전자 등에게 안전 매뉴얼을 배포했으나, 이들이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전담팀은 물리적으로 전수 실태조사가 불가능하자 유치원 몇 곳을 선정해 형식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계 안팎에서 4명의 직원이 300개가 넘는 공·사립 유치원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된 사고였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고와 같은 인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학교 안전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담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재원을 투입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단순히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그치거나, 대중요법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제도와 규정을 아무리 강화해도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의 의식과 자세다. 철저하게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라도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사고는 다시 한번 보여줬다.

특히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안전은 온전히 어른들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운전자가 어린이들이 내린 후 버스 안을 꼼꼼하게 살펴 더라면 A군의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에도 교육현장에서 아직도 단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할 유치원과 학교가 위험지역이어서야 되겠는가.

無 等 鼓

얼마 전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석 초등학교를 취재했다. 올해 120살 된 학교에는 작은 역사관이 있었다. 일흔이 넘는 졸업생들, 미국과 독일 등에서 찾은 이들이 방명록에 남긴 글은 간 단했지만 애뜻하다. 공부했던 교실에 다녀온 후 추억에 젖은 마음이 담긴 글도 있었다. 아버지와 청년이 된 자식이 ‘동창생’으로 함께 방명록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1930년대 학적부도 흥미로웠다. 성적은 수우미양가 대신 1점~10점으로 표기돼 있고 학생의 품성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었

다. 나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궁금해졌다. 학교 게시판에 붙은 교화, 교육, 교가 소켓글을 보고 모교 교가를 떠올려 보는데 동통 생각이 나지 않았다. 몇 회 졸업앨범이었는데도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았다. 나만 그런가 싶어 주변에 물어봤다. 초등학교 교가를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졸업 연도를 기억하는 이가 그나마 좀 있는 편이었다.

교가가 공명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무등산’, ‘광주’, ‘경향꽃’, ‘문필봉’ 등 가사를 보니 곧바로 멜로디가

떠올랐다. 이후 한동안 교가를 흥얼거리게 됐다.

며칠 전 취재한 나주 남평중 다도분교장은 학생 수가 10명인 초미니 학교다. 다도 분교장에서는 3~5일 음악캠프가 열린다.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교와 동문, 주민들이 힘을 모았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동문들은 2500만 원을 모아 학교에 전달했다. 마을 주민들도 모금 활동을 펼쳤고, 5일 열리는 콘서트와 마을 잔치 댄

음식을 대접한다. 수물지구 주민들로 이미 한 차례 ‘상실’을 겪어낸 이들에게 내 꿈

과 추억이 담긴 학교가 사라진다는 건 또 한 번의 ‘아픔’일 터다.

지난주 걸스카우트 취재를 포함해 요즘 잊고 지냈던 학생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인터뷰 기회가 많아 자연스레 과거로 여행을 떠난다.

가끔 모교 운동장과 교실에 다시 가 보고 싶기도 하지만 거리상, 일정상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잊고 지냈던 추억들을 불러내도 좋을 듯하다.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가를 들을 수 있다. 오랜만에 교가도 한 번 불러보자.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